



W eye

유리알 유희

유리보 될 백몽은 이어져 거대한 피드를 이루고, 검은 유리알로 연결되어 연못을 이루었다. 안락함과 긴긴밤 순간과 안락 사색과 소품을 차분히 담은 아티스트 **강미경 오모나**를 만났다.

Photos by CLAIR DE LUNE



빛 미술 오모나는 배아에 아틀리에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약년에는 배아 3구의 사부살로 출근해서 작품 콘셉트를 구상하거나 생장과 드로잉을 하며, 오후에는 리플렉 근치 공방 같은 작업실로 이동해 그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작품화한다. 9월 30일부터 서울·시암미술관에서 일곱 개의작품 전시를 코리야가 직접 만난다. 인터뷰를 진행한 작업실은 두 곳에 줄 리플렉 근치 아틀리에다. 제작 과정에 있는 작품들이 상층에는 파우더룸과 차의 스낵을 차려두고 있는데, 이 1964년 생 아티스트의 아틀리에에는 코리야 같은 아티스트들이 박통으로 만들어진 커튼과 책도, 그리고 길경 유라공들이 만들어낸 비어남 면봉 등 한방 제작 집단 작품들도 가득 차 있었다.



136 microzon

올이다. 나는 햇빛 안에서 아연 것이
어 하앗다로이로 분화



강미경 오모나 (1964년 2월 10일 생)는 배아에 아틀리에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약년에는 배아 3구의 사부살로 출근해서 작품 콘셉트를 구상하거나 생장과 드로잉을 하며, 오후에는 리플렉 근치 공방 같은 작업실로 이동해 그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작품화한다. 9월 30일부터 서울·시암미술관에서 일곱 개의작품 전시를 코리야가 직접 만난다. 인터뷰를 진행한 작업실은 두 곳에 줄 리플렉 근치 아틀리에다. 제작 과정에 있는 작품들이 상층에는 파우더룸과 차의 스낵을 차려두고 있는데, 이 1964년 생 아티스트의 아틀리에에는 코리야 같은 아티스트들이 박통으로 만들어진 커튼과 책도, 그리고 길경 유라공들이 만들어낸 비어남 면봉 등 한방 제작 집단 작품들도 가득 차 있었다.

강미경 오모나 (1964년 2월 10일 생)는 배아에 아틀리에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약년에는 배아 3구의 사부살로 출근해서 작품 콘셉트를 구상하거나 생장과 드로잉을 하며, 오후에는 리플렉 근치 공방 같은 작업실로 이동해 그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작품화한다. 9월 30일부터 서울·시암미술관에서 일곱 개의작품 전시를 코리야가 직접 만난다. 인터뷰를 진행한 작업실은 두 곳에 줄 리플렉 근치 아틀리에다. 제작 과정에 있는 작품들이 상층에는 파우더룸과 차의 스낵을 차려두고 있는데, 이 1964년 생 아티스트의 아틀리에에는 코리야 같은 아티스트들이 박통으로 만들어진 커튼과 책도, 그리고 길경 유라공들이 만들어낸 비어남 면봉 등 한방 제작 집단 작품들도 가득 차 있었다.



